

# '시골경찰4' 종영, 마지막까지 다뒀었던 '힐링예능'



매주 따뜻한 힐링을 선물해준 '시골경찰4'가 지난 10일 방송을 끝마쳤다. MBC에브리원 간판 예능프로그램으로 종영했다. 강원도 정선군 신동

## 문안 순찰부터 대마 적발까지 '경찰' 업무 완벽

음에 위치한 신동파출소에서 순경으로 활동하며 목거노인 문안 순찰부터 대마 제배 적발까지 '경찰'의 업무를 완벽하게 해낸 신현준 오대환, 이청아, 강경준 순경 4인의 업무가 모두 끝났다.

근무 마지막날을 맞은 멤버들은 아쉬운 마음에 파출소장에게 "신동을 주민들께 잔치국수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다. 멤버들이 정을 나눈 주민들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대접하기로 하고 준비에 나서자 멘토들도 일손을 도왔다.

이청아 순경과 강경준 순경은 퇴소 잔치 홍보를 위해 마을회관을 거쳐 신동면 최고령자 101세 할머니댁을 찾았다. 할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아 외출을 꺼리는 터라 이청아는 조심스럽게 "국수 먹으러 갈까요?"라고 권했다. 할머니는 외출에 거부 반응을 보였으나 이청아 순경들의

마지막 근무라는 말에 외출을 결심하고 두 사람을 따라 퇴소 잔치 장소로 갔다. 할머니는 그동안 정을 쌓은 순경들에 "정말 고맙다"며 인사했다. 순경들은 퇴소 잔치를 찾아준 주민들에 국수를 대접했고 주민들은 이날 강당에서 열린 순경들의 퇴소식까지 참석해 감동을 더했다.

퇴소식에서 신현준 순경은 주민들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고, 이청아 순경은 "정신에서 시간이 짧았던 것 같다. 많이 배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오대환 순경은 "신동 파출소에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다.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경준 순경은 "많이 배웠다. 좋은 감정 느끼고 간다. 감사하다"며 눈물을 쏟았다. 주민들도 이별의 아쉬움에 눈물을 보였다.

'시골경찰'은 연예인들이 지역 관

할 내 치안센터의 순경으로 생활하며 각종 민원, 신고를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그린 시즌제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시즌1부터 함께한 신현준 오대환과 시즌에서 합류해 유일한 여성으로 활약을 보인 이청아, 이번 시즌에 새로 합류한 강경준이 마음 따뜻한 시골 경찰로 활약했다.

순경 4인은 신동면 곳곳을 순찰 다니며 범죄 예방과 민원 해결을 위해 애썼다. 어린이집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아간 순찰, 신고 장소 출동 등 밤낮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며 따뜻한 힐링을 선물해준 '시골경찰'은 약 두 달의 방송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다음 시즌에는 어떤 감동을 안겨줄지 기대된다.

한편 '시골경찰' 시리즈의 스펀 오프 '도시경찰'이 내년 1월 중 방송될 예정이다. 장혁이 출연을 확정 지었고 '통드라쇼', '바이 리틀 베이버', '주간아이돌' 등을 만든 이순욱 PD가 연출을 맡는다.

##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안길호 매직, 소름 돋는 디테일



슬람의 양식이 혼재된 스페인의 고도 그라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라나다는 장소를 단순히 아름다운 배경으로만 활용된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지점이 있다.

작품 속 그라나다는 보너마 호스텔의 주인 정희주(박신혜)의 지난

'알함브라'를 하는 드라마 팬들에게는 찾아보는 재미를 선사하는 건 단연코 게임과 현실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먼저 2회 방송 말미의 열차 총격신을 들여다보자. 1년 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진 진우가 총격전을 벌였던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안길호 감독이 숨겨놓은 장치를 하나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총격전으로 납작해진 열차 칸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 자신만의 일상에 젖어있는 캐릭터들이다. 총탄이 날아드는 절체절명의 순간 평안하게 잠에 빠져있거나,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게임과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임을 알려준다.

3회에서 등장한 '카페 알카사바' 앞의 날씨 변화 역시 마찬가지다. 최양주(조현철)에 따르면 "항상 비가 오는 설정"이라는 게임의 설정은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 중 오로지 진우만 보고, 느낄 수 있는 빗줄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우와" 하는 탄성을 절로 자아낸다. 게임에 접속한 진우의 시선에서 현실과 게임 속의 날씨 변화를 직접 조합함으로써 AR 게임의 특별함을 한눈에 알려준 것. 이어 배우 박신혜가 연기하는 희주와 엠마를 꼽을 수 있다.

씩씩하고 사랑스러운 여자 희주와 게임 속 매력적인 기타리스트 엠마를 안길호 감독은 '카페 알카사바'의 장면 인콰으로 하나의 프레임에 담아내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게임과 현실이 교차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순간들 속에서 작품의 특별한 맛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안길호 감독, 앞으로 남은 전개에서는 어떤 마법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지 주목된다.

tvN 토일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극본 송재정, 연출 안길호)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감탄을 내보이게 되는 영상의 힘이 있다. AR 게임이라는 낯선 소재를 감각적인 연출력으로 디테일하게 구현하고 있는 안길호 감독의 매직이다. 1일 첫 방송 이후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 단 4회 만에 "지금껏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드라마"로 시청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AR 게임을 주요 소재로 하는 서스펜스 로맨스라는 독특한 장르,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송재정 작가만의 새로운 스토리가 안길호 감독의 세밀한 시선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스며들고 있다는 평. 이에 제작진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름 돋는 섬세한 '안길호 매직'을 찾아냈다.

### ● 이국적인 공간 '그라나다' 표현법

제작 당시부터 스페인 해외로케로 주목을 받았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서구적인 가톨릭 문화와 이

12년의 삶이 묻어있는 곳이다.

클래식 기타리스트를 꿈꾸며 스페인에 왔지만, 몇 년 만에 부모님을 내보이게 되는 영상의 힘이 있다. AR 게임이라는 낯선 소재를 감각적인 연출력으로 디테일하게 구현하고 있는 안길호 감독의 매직이다.

안길호 감독은 그라나다는 곳곳을 세심한 시선으로 담아냈고, 이는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그라나다가 희주의 생활공간으로 보는 이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였다. 지난 3회, 낡은 호스텔을 100억에 팔고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가겠다"면서 활짝 웃는 그녀에게 시청자들이 공감하며 "희주에게 일어난 마법"을 자연스레 받아들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희주가 메일을 살던 공간들이 유진우(현빈) 일에서는 AR 게임이라는 마법이 일어난 공간으로 그려지는 극명한 대비로 신비로움을 더했다. 가히 해외촬영을 완벽하게 활용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그라나다 표현법'이다.

### ● 게임과 현실의 찌릿한 교차점

## 헤이즈, 신곡 '첫눈에' 티저 공개



'음원 강자' 헤이즈(Heize)가 컴백을 앞두고 색다른 겨울을 예고하는 신곡 티저 이미지를 공개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헤이즈는 11일 0시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오는 14일 발매 예정인 새 디지털 싱글 '첫눈에' 티저 이미지를 업로드했다.

공개된 이미지 속에는 붉은색 의상을 입은 헤이즈가 눈발 위에 무릎 꿇은 채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여기에 사진을 감싸는 테두리는 모두 강렬한 레드 컬러로 가득 물들여져 있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겨울의 눈을 상징하는 화이트 컬러와 헤이즈가 착용한 레드 컬러가 대비를 이루며 강렬한 느낌을 전하

는 가운데, 이 티저 이미지가 담아낸 의미는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헤이즈 측 관계자는 "새 싱글 '첫눈에'는 헤이즈만의 특색적인 감성이 묻어나 사랑노래로, 이 곡을 통해 여타 워너비들과 또 다른 색다른 겨울을 선보이고자 한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난해 여름 '비도 오고 그래서'로 음원 차트를 울렸으며 '빙고' 등 '정말 여성'으로 자리매김했던 헤이즈가 신곡 '첫눈에'를 통해 리스너들의 공감 얻어내는 마음도 녹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헤이즈의 새 싱글 '첫눈에'는 오는 14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배틀을 벗으며 12일 오후 8시부터 헤이즈 공식 V 라이브 채널을 통해 '첫눈에' 뮤직 비디오 메이킹 영상이 매일 공개될 예정이다.

## MBC 10주년 '아육대' SM·JYP·YG 다 모인다



MBC 2019 설특집 아이돌스타 육상 볼링 양궁 리듬체조 승마차기 선수권 대회(이하 '아육대')에 슈퍼주니어, 레드벨벳, 트와이스, 아이콘, 세븐틴 등 최정상급 아이돌이 총출동한다.

아이돌 스타들의 치열한 대결들이 펼쳐지는 스포츠 축제 '아육대'는 오는 2019년 10주년을 맞아

말 그대로 '역대급 라인업'을 완성했다. 국내 3대 대형기획사인 SM, JYP, YG의 최정상 아이돌 스타들이 출격해 맹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신설 종목인 '승마차기'는 2019 설특집 아육대에서 첫선을 보이는 만큼 화려한 선수 라인업을 자랑한다. 아육대에 처음으로 출전하는 아이콘을 비롯해 세븐틴, 몬스타엑스, 아스트로, NCT 127, 더보이즈, 스트레이 키즈, 폴던 차일드 등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보이그룹이 선수로 출

전해 실제 경기를 방불케 하는 명승부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018 설특집 아육대'에 신설돼 큰 화제를 모은 종목인 볼링도 주목할만하다. 지난 추선 수준급 실력으로 우승을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 슈퍼주니어 신동이 은혁과 또 한번 우승을 노리며,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보이그룹들이 출전한다. 또한 여성부에서는 모모랜드, 구구단, (여자)아이들, 셀러파이브가 볼링 종목에 최초로 도전하며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다.

화려한 라인업으로 펼쳐질 '2019 설특집 아육대'에서 과연 어떤 아이돌 스타가 올해의 금메달을 품어 안을지, 오는 설 연휴 기간 중 MBC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늘의 운세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음력 11월 6일)



▶**경조** 바, 자, 성씨는 모처럼 좋은 시기가 왔으니 자신의 노력으로 현 상태로 유지한다면 뿌린 만큼 득이 있겠다. 2, 5, 9월생은 동업하면 이익이 혼자 하는 것보다 못할 듯.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 미혼자는 데이트 시 서쪽이 길 방향.



▶**세외** 중심이 흔들리면 되던 일도 허물어질 염려가 있다. 매사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여유를 갖는다면 승리는 내 것이 된다. 나, 오, 툄 성씨는 소리쳐 울어도 상대 마음에 메아리가 치지 않는다. 가까운 쥐, 토끼, 닭띠에게 조언을 구할 것. 행운이 있다.



▶**황송** 현 위치에서 기능을 발휘하면 좋은 성과가 있겠다. 때로는 황재수도 있을 듯. 기, 사, 피 성씨는 우정 때문에 부부 싸움이 일어날까 염려되니 언행을 주의하라. 남, 서쪽의 2, 7, 11월생 마음을 읽을 것.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



▶**세외** 힘들고 목마르던 일들이 이제 하나씩 이뤄질 듯. 3, 4, 8월생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 애정은 자신감만으로는 상대 마음을 잡을 수 없으니 따뜻한 대화로 이끌어 갈 것. 파란색이 행운.



▶**음미** 사소한 이익을 챙기다가 큰 것을 손해 볼 수 있다. 처음부터 소신껏 추진하라. 5, 10, 12월생은 과욕을 부리기보다 현재를 안정시키라. 기, 오, 자 성씨는 유부남을 경계하라. 꿈고 맺음을 잘할 것.



▶**정미** 나, 오, 툄, 흥 성씨는 마음이 두 곳에 있으니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방황한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용기를 얻어 도전하면 매사 순조로워질 듯. 3, 5, 7월생은 남쪽에 빛이 있다. 남성은 컨디션 조절을 잘하라. 건강 조심.



▶**정미** 일을 벌여만 놓고 끝맺음을 못 하기 때문에 득이 없다. 2, 5, 11월생 가족보다는 남에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가정에서는 소외되는 때가 많다. 가족과 대화를 해보라. 외출은 가급적 삼가고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겠다.



▶**정미** 복잡한 일이 해결될 조짐이 보인다. 결단이 시급하다. 4, 9, 12월생은 애정적으로 난관에 부딪힐 수. 슬기롭게 대처해야겠다. 바, 사, 오 성씨는 북쪽에 있는 손아랫사람의 조언을 들을 것. 혼자만의 생각은 금물. 남성은 손재주 조심하라.



▶**황송** 조건 없이 베풀다 보면 의외로 득이 있겠다. 어차피 상부상조하면서 사는 사회인 만큼 베푸는 보람으로 행복함을 느낄 것이다. 기, 오, 피 성씨는 태만해지기 쉬우니 기본 전환부터 하라. 흰색은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색.



▶**정미** 남에게 의지하기보다 혼자 과감히 밀고 나가는 용기가 필요할 때다. 애정은 부모 의견을 따르되 자신들이 판단해 서두르면 빠른 속도로 성취할 운. 나, 바, 자 성씨는 이것이다 싶으면 돌진하라. 금전상 이익이 있다.



▶**정미** 남들은 경기가 안 좋아 공치는 일이 많으나 나는 꾸준히 노력한 덕에 그래도 순탄하다. 1, 3, 6월생은 변동할 생각은 절대 금물. 현 위치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남쪽에서 금전운이 있을 듯. 본분에 충실하면 무난한 하루. 검은색은 불길.



▶**정미** 잘 풀릴 듯하다가 시비에 휘말린다. 상대를 너무나 믿지 말고 문서 관계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2, 5, 10월생은 금전적으로 시비가 있겠으니 1, 4, 8월생과 언행을 조심할 것. 내가 생각해 자연스러운 것을 따르면 무리가 없을 듯.